



‘오해·편견’이 막연한 불안감 불러

현재 등록농약,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하고 잔류 없어

- 홍보부 -

일본농약공업회(JCPA)는 지난 11월 16일 오미야 국제 회의실에서 도심지 주부를 중심으로 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역할과 안전성」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약의 여러가지 역할 및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확보 등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 한국작물보호협회(KCPA) 이병목 부회장과 박운환 이사가 참석, 발표 내용 및 행사 면면을 관찰하는 등 벤치마킹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알아본다.

【제 1부】 「농약이란 무엇인가」에서 농약연구 전문가인 本山씨는 농약의 정의와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정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계속해서 농약으로서 국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험과 검사가 이루어지며 표시의 의무와 사용방법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매년 무작위로 전국 4000호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체크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엄한 벌칙이 주어진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9일부터 「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도입, 유통되는 전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 이어 생산자 대표인 후쿠즈미씨는 대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먹고 있는 농산물중 농약 없이 맛이나 형태가 좋고 곱팡이

나 세균이 침입하지 않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안전관리나 사용법에 세심한 주의를 하고 JA의 농약 메뉴얼에 의하여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현황을 가감 없이 소개하였다. 北野씨는 또 농약은 일본 농업에 있어 꼭 필요하며 그런 농약에 불안을 가지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 2부】 잔류농약연구소 直板씨는 하나의 농약이 개발되어 시판되기까지는 10년의 세월과 1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개발비의 3분의 1이 「소비자의 안전과 농가 등 사용자의 안전을 엄격하게 체크」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산물의 농약잔류는 극히 적으며 채소나 과일이 가지고 있는 독성물질의 양과 비교하여도 극히 적은 양」이라고 데이터를 공개했다. 本山씨는 또 농지근처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통해 농약을 살포한 곳의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 생산자 대표인 후쿠즈미씨는 농기는 자신들도 먹고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니 꼭 안심하고 먹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北野씨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농약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하고 대부분 잔류가 없다. 오해나 편견, 불안감을 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결론을 내렸다. Y